

책임감 있는 사람

학교장 이 동 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말하자면 성공한 일에 있어서나 또는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서나 한가지의 공통점을 찾아 낼 수 있는 듯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책임감에 관한 문제다. 성인사회에서 된 일들은 말할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론을 향해서 너무 비약하는 것같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의 막후에는 반드시 이해득실을 초월한 책임감이 투철한 몇몇—정말로 희귀한—그림자들이 움직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실패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의 표면에 내가진 변명이나 발뻘의 줄거리에는 책임감 없는 인물들의 잔뼈가 역력히 나타나 보이고있다.

물론 나는 위에서 시사한대로 어떠한 일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관련될 인간의 힘에만 달려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여러가지 기타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특히 그것이 근자에 와서는 어떠한 일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옛 표현을 현대적으로 하여서 우주의 핵이 인간이라고 하고 이 핵인 인간의 힘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폭발하며 작용할 때 그 곳에 무한한 힘을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인간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책임있는 일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일의 성공도 실패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하여 이 책임감의 계발이라는 문제는 날마다 자라고 있는 많은 젊은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나로서는 크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학교를 나서는대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한 구실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어떻게하면 분명한 책임관념을 갖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내 뇌리에 감도는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중, 고교 六년간의 학교생활에서 이들의 성장은 꺾꺾 꺾꺾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 성장의 보조에 맞추어 책임감이 확실한 인격의 성장을 보기로 원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이 젊은이들의 성장에는 전문적인 관찰을 안 하더라도 몇가지의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이 젊은이들은 불규칙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둘째로 끊임없이 자라고 있으면서도 스테이지를 옮겨가는 스테프 하나 하나를 밟아가고 있으며 그 스테프 하나 하나를 밟아 가는 과정은 이들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이들의 성장은 결코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의 속도나 그 양상이 다 다르다는 점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성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 성장의 보조에 맞춘 책임감의 성장도 바라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책임감이 자랄 수 있을까. 다음의 몇가지 점들을 생각해본다.

첫째로 책임감의 습득은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누구든지 책임을 알고 맡는 일은 어려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리다거나 혹은 하급학년이라고 해서 미루어서는 안된다 누구도 책임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에 있어서 명령이나 경험의 부족을 구실로하여 남에게 미루거나 또는 그 말을 시기를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책임감은 행동에서 얻어진다. 책임감은 독서나 연설이나 혹은 훈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Learning by doing』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책임을 맡고 일해야 할 기회가 만들어질 때에는 서슴치 말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을 훈련하여 가며 그 행동을 충실하게 이행하므로써 책임감을 길러 가야 될 것이다.

셋째로 책임감은 개인의 경험이지 결코 집단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결코 집단적인 훈련이나 단체행동을 통해서 책임감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그 집단에 속한 한사람 한사람이 각각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집단적 으로는 책임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네째로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 책임이 요구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것은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하여 있는 집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다섯째로 책임감의 체득을 위해서 학생에게는 교사의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지도는 결코 시범이나 혹은 책임의 전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작업의

분담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행동에 참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책임감은 신뢰와 존경에서 얻어진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책이나 별책이나 혹은 강요에 의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인들에게서, 교사에게서, 또 동료학생들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때 책임감은 더욱 자라게 되는 것이며 불신과 멸시 속에서는 전대로 책임있는 언행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일곱째로 책임감은 결코 일조 일석에 얻어지지 않는다. 성장과정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많은 실패와 불안정한 언행의 반복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이지 조금하듯 다숨에 완전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과실을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도 다 잘 못은 저지르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또한 책임감 없는 거짓말도 드물 것이다.

여덟째로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은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사람은 다 달라서 능력도 다르고 성장의 속도나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의 양도 다 달라야 한다. 다 같은 질이나 양의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지워져야 만 힘들지 않게 그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약간 더 힘든 짐을 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반에 무거운 짐을 졌을 경우에는 넘어지게 되고 그 좌절감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타격을 회복하기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상 생각나는대로 책임감이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적어보았다.

『인성』의 마당에서 오늘날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소녀들이 한사람 한사람 참되고 아름답고 또 착한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인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또한 얼마안가면 이들이 우리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구실들을 다하게 될 때 그들이 서있는 주위사회를 참되고 명랑하고 바람직한 고장들로 만들어 주기를 비는 마음 더욱 간절하며 그러기 위해서 이들 한사람 한사람이 알찬 인격자 즉 책임감이 투철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엮어 본다.